

-2018년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2018. 6. 8(금)

도시공간개선단

「2018년 제2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 의 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6. 8.(금) 10:00~13: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참석위원 : 10명(총 15명으로 구성)

- 승효상(위원장, 이로재 대표)
-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代도시재생본부장), 권기욱(도시계획국장)
-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 김영준(서울시 총괄건축가), 배형민(서울시립대 교수)
- 조민석(매스스터디스 대표), 이영혜((주)디자인하우스 대표)
-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 임재용/프란시스코 사닌(2017 서울비엔날레 공동총감독) 참석

※ 배석 : 안재혁(도시공간개선반장/간사), 최재준(도시건축교류팀장),
박제혁(주택건축국 녹생건축팀장)

◆ 상정안건 : 5건

1. 2017 서울시건축비엔날레 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
2. 2019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보고
3. 2019 서울시건축비엔날레 기획 및 프리비엔날레 개최 용역
추진계획 보고
4. 서울시건축비엔날레 해외 홍보 행사결과 보고
5.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보고

간사 성원 보고

위원장 개회 선언

-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최근 백서 트렌드가 메뉴얼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비엔날레 백서도 형식이 비슷한지요?

〈보 고 자〉

- 네 유사한 형식입니다. 추진단계부터 성과까지 그리고 추진단계별 일정별 과업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백서 제작 완료 전에 지난 1회 서울비엔날레 공동총감독인 배형민 감독과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감독에게 백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총감독 검토를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자〉

- 네 공동총감독과 원고작성부터 사실관계 확인단계까지 검토절차를 거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제작 완료 후 완료 보고 요청드립니다.

〈보 고 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이상 백서 제작 관련하여 위원분들의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는지요?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2.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보고

〈해외 총감독/프란시스코 사닌〉

- 모두발언

〈국내 총감독/임재용〉

- 2019 서울비엔날레 추진계획 보고

〈○○○ 위원〉

- 내년 서울비엔날레 개최 시기에 국내외 많은 비엔날레가 함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량 높은 국내외 인사 초청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초청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전시는 일반시민에게 크게 흥미를 유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시를 주제로 한 전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 눈높이에서 재미있고 이해가 쉬운 전시와 행사가 되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회 서울비엔날레 행사의 경우에도 총감독뿐만아니라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사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말씀하신 차기 서울비엔날레 주제인 collective city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총감독/임재용〉

- 흔히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해외 총감독인 프란시스코 사닌 교수가 제안하였고 이 용어는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

- 총감독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비엔날레는 도시 전체가 행사 장소로 많은 것들이 이뤄지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파트너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는 많은 문화공간과 연구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복합 공간들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 홍보 및

참여도 제고 측면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총감독/임재용〉

-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쪽과 서쪽에 상징적 장소를 두고 그 중간 또는 곳곳에 주제에 맞게 장소를 선정하여 연결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입니다.

〈○○○ 위원〉

- 당초에 서울비엔날레를 창설할 때 동쪽과 서쪽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매회 다른 장소로 변화를 주어 서울시 전역을, 전체를 행사 장소로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리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꼭 일직선상의 또는 물리적으로 반드시 연결된 장소를 따라 전시를 관람하거나 행사에 참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총감독/임재용〉

- 말씀드린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후보지를 두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서울비엔날레의 목표나 전략을 말씀하셨지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사업의 타깃을 결정하고 타깃이 결정되어야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서울비엔날레만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이

타깃이라면 주제 표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카드의 경우를 본다면 “열심히 일한당신 떠나라”라고 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collective city라는 단어를
듣고 일반시민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로 “모여 있으니 아름답다” 등 이해가 쉽고 바로 와닿는 표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지게 장소 선정을
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목적이
분명하다면 예를 들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지난 1회 행사의 경우 DDP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축으로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구현했지만 일반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축을 확실히 잡고 이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만
흩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제를 영어로 먼저 표현하는 것, 시작하는 것은 이해한다. 1회
서울비엔날레의 경우도 영어로 주제를 선정하고 한국어로 그
의미를 찾아냈다. 다만 collective city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합도시로 번역될 경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의 도시,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개인이 아닌
집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collective city는 건축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사회문제를 담는 의미로 볼 수 있다.
collective city가 주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주제에 대해
동의합니다. 주제의 의미에 대해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감독께서 말씀하신 2019 서울비엔날레 구도의 경우 2017 서울비엔날레 구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프로젝트인 on-site의 경우 지난 행사의 현장프로젝트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면 용어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주제에 대해 동의합니다. 지난 1회의 주제는 기술적으로 너무 포괄적이었다면 이번 주제는 충분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장소와 부장소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산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또한 도시전의 경우 주제와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구성력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에서 진행하다고 하더라도 서울비엔날레의 주제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행사의 경우 도시전과 주제전의 장소를 바꿔서 진행했다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

- 1회 서울비엔날레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당초 장소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장소선정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차기 행사에는 이 점을 반영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도 주제에 대해 동의합니다.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 위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울비엔날레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정보를 주는 것인지, 교육이 목적인지, 새로운 도시를 보게 하는 자극을 주는 것인지 정해져야, 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있어야 이를 보여주는 방법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떤 방법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위원〉

○ 그럼 주제는 다들 동의하시는지요?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3.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획 및 프리비엔날레 개최 용역 추진계획 보고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추진하는 내용이 인력, 기획 등 차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기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추진 시 반드시 총감독과의 협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별 사업비 분배에 있어서도 총감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위원〉

- 사업 추진조직 선정 시 차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4.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해외 홍보 행사결과 보고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해외 총감독/프란시스코 사닌〉

- 행사 추진내용 및 홍보행사 결과 브리핑

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보고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요?

〈보 고 자〉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 입니다.

〈○○○ 위원〉

- 서울비엔날레재단이 아닌 도시건축을 넣은 이유가 있는지요?

〈보 고 자〉

- 정식명칭은 행정안전부와 차후 협의 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

- 서울도시건축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엔날레를 포함 서울의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서울비엔날레 창설 취지 및 목적 자체가 현대 도시에 내재한 다양한 사회, 경제 및 정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단 설립 후 포괄적 사업추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 발전, 개최를 위하여 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폐회선언

-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